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수 미

2018년 8월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수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수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김 수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적응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4개 중학교 총 49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490명 중 479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9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65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95%을 보였다.

조사도구는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여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 번째, 부-자녀 의사소통에서 정서조절 능력 중 타인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조절능력 중 타인조절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세 번째로 부-자녀의사소통과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과 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은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중학생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생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인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하여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 학교, 학생간의 긍정적 정서가 생기고 부모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 조절효과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연구 모형	5
4. 용어의 정의	5
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5
나. 스마트폰 중독	6
다. 정서조절능력	6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자녀 의사소통	8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념	8
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	9
2. 스마트폰 중독	10
가.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10
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11
3. 정서조절능력	12
가. 정서조절능력의 개념	12
나.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	12
4. 선행연구 고찰	13
가.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한 선행연구	13
나.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선행연구	14
다.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15
III.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17
2. 측정 도구	20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20
나. 정서조절 능력 척도	21
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22
3. 자료분석	22
IV. 연구결과 및 해석	24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24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27
3.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검증	28
가.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28
나.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30
다.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31
라.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33
마.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35
바.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36
V. 논의 및 결론	39
참고문헌	43
Abstract	48
부록(설문지)	51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및 분포	19
표 III-2.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1
표 III-3. 정서조절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1
표 III-4.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2
표 IV-1.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반된 특성	25
표 IV-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26
표 IV-3.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	27
표 IV-4.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29
표 IV-5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31
표 IV-6.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 효과	32
표 IV-7.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34
표 IV-8.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36
표 IV-9.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37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모형	5
그림 IV-1.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30
그림 IV-2.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33
그림 IV-3.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35
그림 IV-4.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정보화 지식 사회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지식 사회는 현대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기능들을 앞세운 다양한 스마트폰의 출시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김영미, 2015). 이러한 정보화 지식 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해환경이 되어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란 휴대전화 특징과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 결합된 디지털 매체로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다수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이다(손영준·김옥태, 2011). 서애정(2013)은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통신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에 운영체제를 더하여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동형 멀티미디어라고 하였다. 정준구(2010)는 모바일 인터넷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고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보를 연결시켜 빠른 정보획득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달리 전화나 문자,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정보검색, 게임, 동영상, 음악, 쇼핑, 학습, 금융, DMB시청, 메일업무 등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PC기반의 인터넷 사용과 같이 고정된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2015, 김보민).

스마트폰은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중독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장재홍 외, 2009). Kim(2014)은 급증하는 스마트폰 확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감, 내성, 금단 증상 경험을 보고하였고, Park et al.(2015)는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나타냈고, Gu(2014)은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블링, 유해컨텐츠 접속 등 사회적인 문제 말하고 있다.

중학교시기에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며, 자기개념이 낮은 시기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점점 더 빠지게 된다(이수진, 문혁진,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에 따른 스마트폰의 지나친 과다 사용의 문제는 우울, 불안, 강박 증세, 학업능력 저하, 신체건강, 학교적응, 경제적 문제 등에서 부적응을 야기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이정화, 박정언, 최선희, 2008; 남영옥, 2004).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시기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6년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은 17.8%로 조사되었다. 유아동 17.9%, 청소년 30.6%, 성인 16.1%, 60대 11.7%다. 어른이나 아이나 눈만 뜨면 스마트폰부터 찾는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는 물론 걸어다니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다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할 시기에 아이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에 빠져 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로는 메신저(94.5%)이용이 가장 많았고 게임(81.3%), 웹서핑(73.7%), SNS(65.0%)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는 게임(35.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메신저(24.0%), 웹서핑(21.1%)순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위험군인 경우, 유아동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3.5%, 청소년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36%로 높게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해왔다.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이미경, 2014; 우임덕, 2014), 반대로 남녀의 성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문두식, 2015)도 있다. 경제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수준과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심보현, 201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적 요인으로 아동기는 가정의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

는 시기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아동기 개인의 내적문제로 보기보다는 부모 자녀 등 가족체계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정수연, 2014).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녀관계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로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관계는 스마트폰의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 애정, 자신의 욕구 충족을 이해 스마트폰에 더 몰입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모 자녀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하며 원활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올바른 정체감과 자존감이 형성된다(이현숙, 2016).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어려움이 적은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모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게 되며, 청소년은 자신의 관계 지향적 욕구를 스마트폰 중독을 통하여 해소하려고 할 수 있다(여종일, 2015).

정서조절이란 Gross는 첫째, 정서조절은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정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정서조절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정서조절이다. 박은민과 김봉환(2009)은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 환경, 직업 등 자기가 스스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정서조절과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수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서와 관련된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고(엄민경, 2013), 인지적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전략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하였다(한수진, 2015). 또한 전미아(2014)는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 간의 유의미한 부적상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 내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둘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어떠한 조절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구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1.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타인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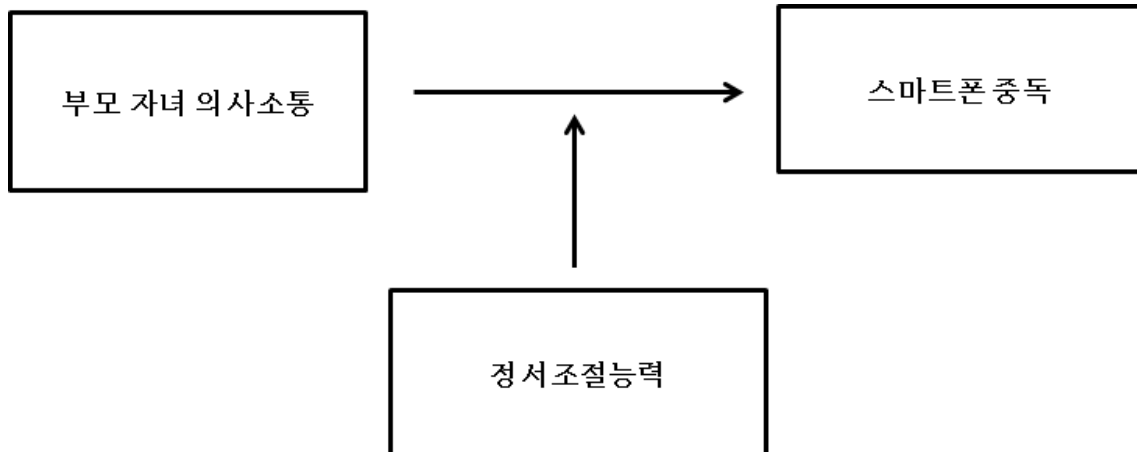
1-4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1-5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타인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1-6 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모형



<그림 I-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 능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자녀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 의사소통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보고자 한

다. 부모-자녀 사이에 상호작용할 때 감정, 느낌, 사고,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소통 모두 포함된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현이 자유롭고 개방적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감정표현과 반응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족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측정하고자 한다.

나.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제작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생활장애’,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가상세계 지향성’, 스마트폰을 그 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거나 덜 사용하면 초조와 불안 또는 강박적 증상이 일어나는 ‘금단’이라는 개념이 구성된 중독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스마트폰 중독은 의존, 금단, 내성증상이 포함되는 심리적 장애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고 강박증상이 생겨서 학업이나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환경, 직업 등 궁극적으로 자신과 스스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박은민, 김봉환, 2009). Parker와 Asher(1987)는 정서조절능력이 자신의 기분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사고나 기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적절한 대처능력을 말하며, 이는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보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 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일로 말이나 글, 그 밖의 소리, 표정, 몸짓 등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전달’로도 사용된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느끼며 소속감을 갖게 되고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아동기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존의 부모와 자녀관계 변화에 따른 갈등이 문제해결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조윤미, 2008).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끌고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심보현, 2013). 부모는 자녀에게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부모의 언어나 습관, 행동패턴을 통해 자녀 양육하면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소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사소통을 보는 관점이 학자마다 다 다르며, 정의 또한 달리 하고 있다. 정명희(1988)는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황기아·방문희(1992)는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서로 이해하며, 의사소통은 개개인에 영향을 주어 관계개선 또는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김기리(2007)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생각, 태도,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과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전달을 통하여 부모 자녀 상호간의 행동에 주고받는 매개체이며, 가족 체계 안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Satir(1971)는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회유형은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려는 유형이고, 비난형은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유형을 말한다. 초이성형은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냉담하여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는 유형이며, 산만형은 주변의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다.

Gordon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나 전달법(I-message)과 너 전달법(You-message)로 분류하였다. 나 전달법(I-message)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입장과 감정, 느낌을 알려주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유형이며, 너 전달법(You-message)은 명령이나 경고, 설교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부모 자녀간의 응집력을 높이고,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민혜영, 1990).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double-binds)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기술이다(김정옥, 2006).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김양숙, 1995)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현이 자유롭고

개방적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감정표현과 반응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을 이해를 위해 Barnes와 Olson(1982)의 연구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중독

가.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스마트폰은 전화의 기본적인 음성통화 수단에 더해서 음악 감상, 사진촬영, TV시청,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매체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에 기존의 인터넷, PC, 휴대폰의 장점이 잘 융합되어 재창조된 기기라 할 수 있다(이민석, 2010) 기존의 PC와는 차별된 스마트폰의 휴대기능과 편리성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가능하며 푸시(PUSH)의 기능으로 SNS 등 다양한 오락적 매체 기능을 가지고 있다(변희숙, 권순용, 2014). 접근성에 있어서 인터넷 및 기존 휴대폰과 다른 점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강민정, 2014). 이러한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진(2002)은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으로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을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으로 나누었다. 의존이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휴대폰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성은 휴대폰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초조·불안은 휴대폰을 사용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정신 운동성이 초조·불안성을 유발하는 것이며, 금단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환상을 가지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중요한 연락이 와 있을지를

궁금해 하고 초조해 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주리와 허경호(2004)의 연구에서 휴대폰 사용에 과하게 몰입하여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도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증상을 휴대폰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

이형초·심경섭(2006)은 아동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 중독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였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하였고(배성만·박중교·고영삼, 2012),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문제 지향적일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며, 개방적 소통을 하는 경우는 인터넷 중독이 심하지 않았다(임미림, 2014). 부모 양쪽 모두가 문제 지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하였고,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보다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각하였다(한상임, 2010).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면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졌고 문제 지향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졌다(이수진·문혁준, 2013). 따라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같은 미디어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학생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으며, 부와 모를 따로 분리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따로 분리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부-자녀 의사소통과 모-자녀 의사소통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서조절능력

가. 정서조절능력의 개념

박은민(2008)은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환경, 자신의 일 특히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문용린(1996)은 정서조절 안에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을 포함하고 자기 속에서의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지각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패턴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서조절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의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서 상대방을 감화시킨다(Salovey & Mayer, 1990). Gottman과 Kats(1989)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한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아동은 사회적 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인기도 있고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Eisenberg 등(2000)은 정서조절은 성장할수록 정서적으로 각성을 조절하는 하는 능력이 발달되며, 상황에 맞는 사고,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서 상황이나 관계적 면에서 능숙한 능력을 보이고 스트레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한상철(1998)은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사람마다 개인차를 보이며, 청소년시기에는 정서를 다루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나 부모의 부정적인 언어적 피드백으로 인해 자살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정서는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사해 주고 있다(한상철, 1998).

나.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여 정서와 관련된 변인과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양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남·여 스마트폰 중독은 정서조절 양

식의 하위 요인 중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버리고 다른 일을 떠올리며 집중하는 중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다(김주현, 2014). 전미아(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 결과가 나타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빠르고 복잡한 자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스마트폰 대한 의존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낮은 정서조절 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성자(2012)와 최재천(2014)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과 휴대폰 중독 간의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낮은 정서조절 능력을 보였다는 김서현(2011)과 이만제(2009)의 연구결과에서 정서조절능력과 낮으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정서조절 능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

부모의 일방적인 돌봄과 양육 중심인 영·아동기(최미경, 2015)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독립 욕구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므로(이영선 외 6명, 2013)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이성실, 2013). 이런 긴장상태와 갈등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변화된 부모 자녀 간의 기대와 가치, 책임과 역할기대 등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요구되므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 상호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심이 된다(김소영, 2013; 이성실, 20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전달방식과 형태에 따라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분류하는데(Barnes & Olsen, 1982),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개성과 자율적인 특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독재나 거부감 없이 사실이나 느낌,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설교, 명령, 비난 등으로 자녀에게 거부감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 불신 등으로 의사소통을 저해함으로써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방해가 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김인경·윤진(1995)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모의 가치관이나 언어 사용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가치관이나 신념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그 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신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김오남·김경신(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사고가 보다 안정적이었고 상호 간 교감이 되는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김소영(2013)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역기능적 신념이 높은 반면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역기능적 신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이성실(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이 확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 사고가 부모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주고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기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정서적, 신체적인 영향에서 금창민(2013)은 스마트폰의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신건강 중 우울, 불안, 초조, 충동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즉 청소년시기에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정신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이창민(2014)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우울증상으로 나타나고, 동

시에 매개효과로 자살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강세연, 2015),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적 행동에 정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장여옥, 조남익, 2014). 또한 스마트폰 고위험 집단이 일반 사용자군 집단에 비해서 사회성 기술이 낮고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밝히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조절력 증진 및 충동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수진, 2012). 장여옥과 조남익(2014)은 스마트폰 중독은 계획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충분한 수면과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장로(2013)은 스마트폰 중독은 불규칙한 수면습관 형성과 시력감퇴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체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고(허지혜, 2013), 공격성과 우울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도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황승일, 2012). 학교 요인 중 친구지지와 학교만족도는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낮게 나타났다(박지선, 2012; 류화청, 이윤미, 2014).

다.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시기에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박지현(2008)은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이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적응에 예민한 시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은 남녀 청소년의 우울, 불안을 증가시키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격행동이 나타난다(도순희, 2008).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은 부분매개로 나타났다(김혜선, 2010). 결국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부모가 적절하게 정서적 개입을 해야 하며, 부모의 개입이 힘들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조절 능력은 유아의 사회인 유능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

다(박수현 2004; 이순원, 2010). 오수남(2012)은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를 잘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이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나 특성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 증상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보이고 있어서 내현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홍성도 외, 2003).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성장으로 성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확률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49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확률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례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이 학년별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고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서 표본 추출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중학교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2월 0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4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79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하고, 총 46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58명(57.1%), 여학생 194명(42.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았다. 학년은 1학년 152명(33.6%), 2학년 155명(34.3%), 3학년 145명(32.1%)으로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제주 시내가 266명(58.8%), 서귀포 시내가 104명(23.0%), 읍면지역이 82명(18.1%)으로 제주 시내에 사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181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하위권이 116명(25.7%), 중상위권이 86명(19.0%), 하위권이 46명(10.2%), 상위권이 23명(5.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59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하’가 125명(27.7%), ‘하’가 35명(7.7%), ‘중상’이 25명(5.5%), ‘상’이 8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95명(43.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04명(23.0%), 대학원 이상이 80명(17.7%), 기타가 43명(9.5%), 중학교 졸업이 9명(2.0%), 초등학교 졸업이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69명(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43명(32.6%), 대학원 이상이 44명(9.7%), 기타가 44명(9.7%), 중학교 졸업이 5명(1.1%), 초등학교 졸업이 2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52)

구분		N(=452)	구성비율(%)
성별	남	258	57.1
	여	194	42.9
학년	1학년	152	33.6
	2학년	155	34.3
	3학년	145	32.1
사는 지역	제주시내	266	58.8
	서귀포시내	104	23.0
	읍면지역	82	18.1
학업 성적	상위권	23	5.1
	중상위권	86	19.0
	중위권	181	40.0
	중하위권	116	25.7
	하위권	46	10.2
경제적 수준	상	8	1.8
	중상	25	5.5
	중	259	57.3
	중하	125	27.7
	하	35	7.7
아버지 학력	초졸	1	.2
	중졸	9	2.0
	고졸	104	23.0
	대졸	195	43.1
	대학원이상	80	17.7
	기타	43	9.5
	결측값	20	4.4
어머니 학력	초졸	2	.4
	중졸	5	1.1
	고졸	143	31.6
	대졸	169	37.4
	대학원이상	69	15.3
	기타	44	9.7
	결측값	20	4.4

2. 측정도구

가.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nes과 Olse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Form)를 우리나라에 맞추어 민하영(1991)이 번안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를 양현아(2003)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내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부/모와 의논 한다’ 와 같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눈치 보거나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촉진시키기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우리 부/모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나는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와 같이 의사소통을 망설이고 회피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선택적 의사소통을 하고 일치되지 않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낸다. 표현과 반응이 자유롭지 못하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형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발언, 이중속박 및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기술의 특징을 보이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의사소통의 문항들 중,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자의 의사소통은 Cronbach's α 는 0.918, 모-자의 의사소통은 Cronbach's α 는 0.920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부-자 의사소통	20	1, 3, 6, 7, 8, 9, 13, 14, 16, 17 2*, 4*, 5*, 10*, 11*, 12*, 15*, 18*, 19*, 20*	.918
모-자 의사소통	20	1, 3, 6, 7, 8, 9, 13, 14, 16, 17 2*, 4*, 5*, 10*, 11*, 12*, 15*, 18*, 19*, 20*	.920

*역채점 문항

나. 정서조절 척도

정서조절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Goldman(1995), Saarni(1990),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척도를 조인영(2007)이 4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의 2개 하위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쳐 추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조절이 정서지능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선행연구(문용린, 1996; Salovey & Mayer)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8문항으로 타인조절능력은 타인의 감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인능력을 의미하며 9문항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조절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조절능력'의 Cronbach's α 는 0.829, '타인조절능력'의 Cronbach's α 는 0.870, '정서조절 전체'의 Cronbach's α 는 0.894로 나타났다.

<표 III-3> 정서조절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자기조절능력	8	10, 11, 12, 13, 14, 15, 16, 17	.829
타인조절능력	9	1, 2, 3, 4, 5, 6, 7, 8, 9	.870
전체	17		.894

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4가지 하위요인은 5개의 일상생활의 장애 문항과 2개의 가상세계지향성 문항, 4개의 금단 문항, 4개의 내성문항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해당하는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일상생활장애’의 Cronbach’s α 는 0.775, ‘가상세계지향성’의 Cronbach’s α 는 0.555, ‘금단증상’의 Cronbach’s α 는 0.802, ‘내성증상’의 Cronbach’s α 는 0.786, ‘스마트폰 중독 전체’의 Cronbach’s α 는 0.907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일상생활장애	5	1, 5, 9, 12, 13*	.775
가상세계지향성	2	2, 6	.555
금단증상	4	3, 7, 10*, 14	.802
내성증상	4	4, 8*, 11, 15	.786
전체	15		.907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술 통계

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연구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본인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11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휴대폰이 없음’이 22명(4.9%), ‘타인 스마트폰(부모, 형제, 친구 등)’이 14명(3.1%),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이 5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구매동기는 ‘연락의 용이성’이 312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소지자들과의 유대감’이 44명(9.7%), ‘기타’가 41명(9.1%), ‘최근의 유행’이 28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3시간 미만’이 129명(2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시간-2시간 미만’이 93명(20.6%), ‘3시간-4시간 미만’이 88명(19.5%), ‘4시간-6시간 미만’이 71명(15.7%), ‘1시간 미만’이 40명(8.8%), ‘6시간 이상’이 31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는 ‘저녁 8시-10시’가 161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밤 10시-12시’가 143명(31.6%), ‘저녁 6시-8시’가 72명(15.9%), ‘오후 4시-6시’가 55명(12.2%), ‘밤 12시-새벽 2시’가 19명(4.2%), ‘학교에서 일과 중’이 2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가 264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동영상/DMB’가 246명(19.8%),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포함)’가 226명(18.2%), ‘모바일 게임’이 171명(13.8%), ‘음성통화’가 167명(13.4%), ‘인터넷 정보검색’이 146명(11.7%), ‘음란커뮤니티, 동영상 시청’이 2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N=452)

구분		N(=452)	구성비율(%)
스마트폰 종류	본인 스마트폰	411	90.9
	타인 스마트폰(부모, 형제, 친구 등)	14	3.1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	5	1.1
	휴대폰없음	22	4.9
구매동기	연락의용이성	312	69.0
	최근의 유행	28	6.2
	스마트폰 소지자들과의 유대감	44	9.7
	기타	41	9.1
	시스템 결측값	27	6.0
평균 사용시간	1시간 미만	40	8.8
	1시간-2시간 미만	93	20.6
	2시간-3시간 미만	129	28.5
	3시간-4시간 미만	88	19.5
	4시간-6시간 미만	71	15.7
	6시간 이상	31	6.9
사용시간대	학교에서 일과중	2	0.4
	오후 4시-6시	55	12.2
	저녁 6시-8시	72	15.9
	저녁 8시-10시	161	35.6
	밤 10시-12시	143	31.6
	밤 12시-새벽 2시	19	4.2
스마트폰 기능 ^a (다중응답)	음성통화	167	13.4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포함)	226	18.2
	인터넷 정보검색	146	11.7
	모바일게임	171	13.8
	SNS	264	21.2
	음악/동영상/DMB	246	19.8
	음란커뮤니티, 동영상시청	23	1.9

^a 다중응답분석 전체 응답수 = 1243

나.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부-자의 의사소통 평균은 3.43점, 모-자의 의사소통 평균은 3.48점, 정서조절 전체의 평균은 3.72점, 스마트폰 중독 전체의 평균은 2.49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모-자 의사소통($M=3.48$, $SD=.664$)이 부-자 의사소통($M=3.43$, $SD=.671$)보다 더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하위변인 중, 타인조절능력($M=3.88$, $SD=.625$)은 자기조절능력($M=3.54$, $SD=.664$)보다 더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내성증상($M=2.76$, $SD=.854$)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가상세계($M=2.01$, $SD=.843$)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 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대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Kline, 1998; 배병렬, 2011).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 값은 0.01에서 0.65, 첨도의 절대 값은 0.00에서 0.60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N=452)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의사 소통	부-자 의사소통	3.43	.671	.05	.22	1-5
	모-자 의사소통	3.48	.664	.06	-.10	1-5
정서 조절	자기조절능력	3.54	.664	.25	-.18	1-5
	타인조절능력	3.88	.625	-.02	-.46	1-5
	전체	3.72	.566	.30	-.42	1-5
스마트 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2.72	.854	-.03	-.32	1-5
	가상세계	2.01	.843	.65	.03	1-5
	금단증상	2.16	.858	.53	-.19	1-5
	내성증상	2.76	.854	-.06	-.15	1-5
	전체	2.49	.724	-.08	-.27	1-5

2.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1에서 사용되는 부모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정서조절(자기조절능력, 타인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부모 의사소통, 정서조절,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 (N=452)

변인	1	2	3	3-1	3-2	4
1 부-자 의사소통	1					
2 모-자 의사소통	.866**	1				
3 정서조절 전체	.300**	.302**	1			
3-1 자기조절능력	.225**	.206**	.873**	1		
3-2 타인조절능력	.301**	.323**	.887**	.549**	1	
4 스마트폰 중독 전체	-.356**	-.357**	-.367**	-.320**	-.326**	1

** $p < .01$

부-자 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 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은 정적 상관($r = .300, p < .01$)이 나타났다. 또한 부-자 의사소통은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r = .225, p < .01$)이 나타났고,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능력도 정적 상관($r = .301, p < .01$)이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우수해지고,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조절능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 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자 의사소통과 정서조절은 정적 상관($r = .302, p < .01$)이 나타났다. 또한 모-자 의사소통은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r = .206, p < .01$)이 나타났고,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능력과

도 정적 상관($r=.323,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우수해지고,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조절능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r=-.356, p<.01$)이 나타났고, 모-자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도 부적 상관($r=-.357,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조절 전체와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r=-.367, p<.01$)이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 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r=-.320, p<.01$)이 나타났고, 타인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도 부적 상관($r=-.326,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중에서도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가.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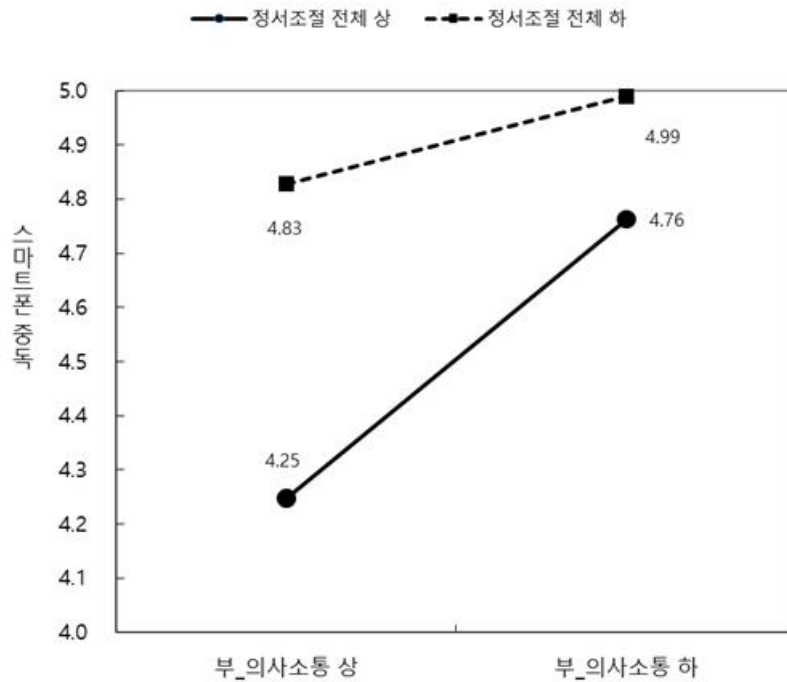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73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전체가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표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부의 의사소통	-.385	-.356***	.127	.125
2	부의 의사소통	-.292	-.271***	.201	.198
	정서조절 전체	-.365	-.286***		
3	부의 의사소통(A)	-.253	-.234***	.219	.213
	정서조절 전체(B)	-.357	-.279***		
	상호작용항(A*B)	-.233	-.138**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부의 의사소통($B = -.385$, $p < .001$)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약해지며, 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5%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 전체가 추가됨으로써 7.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9.8%이다. 정서조절 전체 수준이 높을수록($B = -.365$)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1.5%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1$) 전체 설명력은 21.3%이다. 따라서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가 조절역할($B = -.233$)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서조절 전체 수준이 높고 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제시된 <그림 IV-1>을 보면, 부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 전체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이 낮은 경우에 정서조절이 높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지만 정서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이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81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의 의사소통이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5>.

<표 IV-5>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부의 의사소통	-.385	-.356***	.127	.125
2	부의 의사소통	-.324	-.300***	.187	.184
	정서조절_자기조절	-.275	-.252***		
3	부의 의사소통(A)	-.309	-.286***	.192	.186
	정서조절_자기조절(B)	-.267	-.244***		
	상호작용항(A*B)	-.105	-.070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부의 의사소통($B = -.385$, $p < .001$)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의 자기조절이 추가됨으로써 5.9%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8.4%이다. 정서조절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B = -.275$)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0.2%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p > .05$)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은 조절역할($B = -.070$)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75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의 의사소통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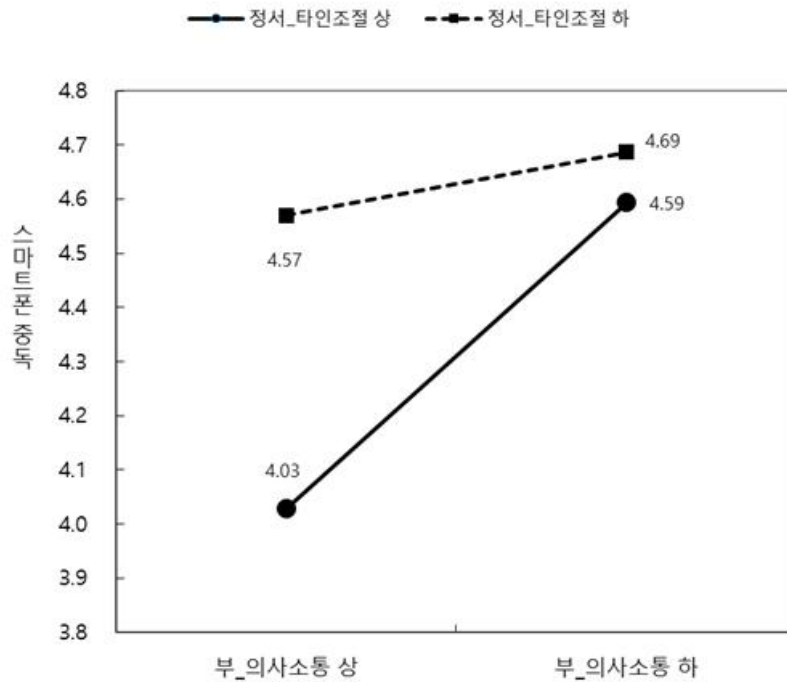
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6>.

<표 IV-6>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부의 의사소통	-.385	-.356***	.127	.125
2	부의 의사소통	-.307	-.284***	.180	.176
	정서조절_타인조절	-.279	-.241***		
3	부의 의사소통(A)	-.254	-.235***	.207	.201
	정서조절_타인조절(B)	-.254	-.240***		
	상호작용항(A*B)	-.267	-.171***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부의 의사소통($B = -.385$, $p < .001$)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약해지며, 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5%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추가됨으로써 5.1%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7.6%이다.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 수준이 높을수록($B = -.279$)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2.5%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20.1%이다. 따라서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조절역할($B = -.267$)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2>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제시된 <그림 IV-2>를 보면, 부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낮은 경우에 정서조절이 높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지만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라.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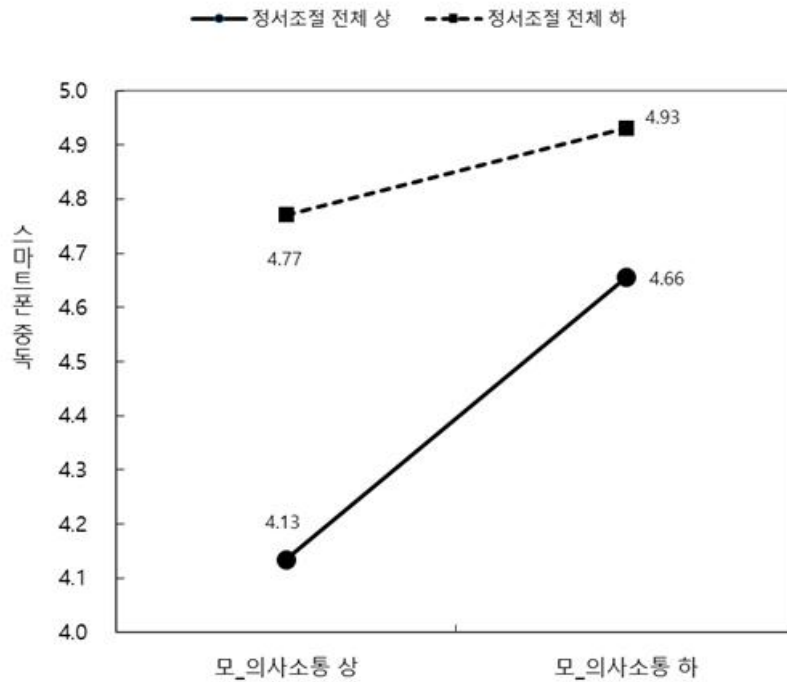
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전체가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7>.

<표 IV-7>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모의 의사소통	-.390	-.357***	.128	.126
2	모의 의사소통	-.296	-.271***	.201	.198
	정서조절 전체	-.364	-.285***		
3	모의 의사소통(A)	-.257	-.235***	.217	.211
	정서조절 전체(B)	-.365	-.286***		
	상호작용항(A*B)	-.218	-.128**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모의 의사소통($B = -.390$, $p < .001$)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약해지며, 모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6%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 전체가 추가됨으로써 7.2%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9.8%이다. 정서조절 전체 수준이 높을수록($B = -.364$)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1.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1$) 전체 설명력은 21.1%이다. 따라서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가 조절역할($B = -.218$)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3>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체의 조절효과

제시된 <그림 IV-3>을 보면, 모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 전체 수준이 높은 집단은 모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이 낮은 경우에 정서조절이 높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지만 정서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이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마.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74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의사소통이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8>.

<표 IV-8>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모의 의사소통	-.390	-.357***	.128	.126
2	모의 의사소통	-.332	-.304***	.191	.187
	정서조절_자기조절	-.280	-.257***		
3	모의 의사소통(A)	-.315	-.289***	.195	.190
	정서조절_자기조절(B)	-.277	-.254***		
	상호작용항(A*B)	-.102	-.068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는 모의 의사소통($B = -.390$, $p < .001$)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의 자기조절이 추가됨으로써 6.1%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8.7%이다. 정서조절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B = -.280$)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0.3%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p > .05$)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자기조절은 조절역할($B = -.102$)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063으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의사소통이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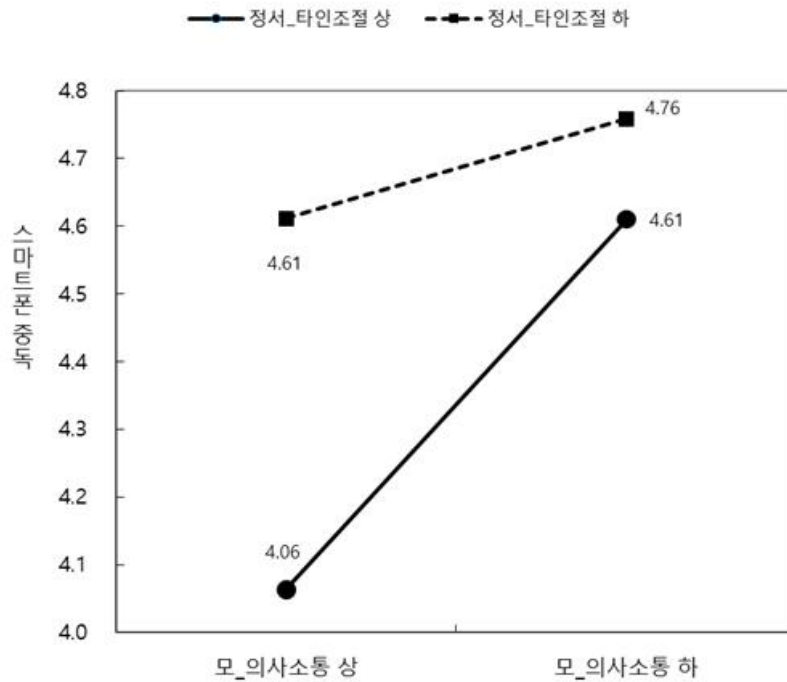
마트폰 중독에 영향에 대하여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IV-9>.

<표 IV-9>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단계	독립변인	B	β	R^2	ΔR^2
1	모의 의사소통	-.390	-.357***	.128	.126
2	모의 의사소통	-.307	-.281***	.177	.174
	정서조절_타인조절	-.273	-.235***		
3	모의 의사소통(A)	-.261	-.240***	.199	.194
	정서조절_타인조절(B)	-.279	-.241***		
	상호작용항(A*B)	-.241	-.153***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모의 의사소통($B = -.390$, $p < .001$)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약해지며, 모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6%이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추가됨으로써 4.8%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7.4%이다.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 수준이 높을수록($B = -.273$)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2.2%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전체 설명력은 19.9%이다. 따라서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조절역할($B = -.241$)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모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지만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수준이 높은 집단은 모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V-4>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의 조절효과

제시된 <그림 IV-4>를 보면, 모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이 낮은 경우에 정서조절이 높은 경우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의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정서조절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지만 정서조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 수준이 높은 집단은 모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 중, 타인조절이 모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높여 스마트폰 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과 학교생활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의 변인 간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간 결과는 부-자 및 모-자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을 가장 예측하는 요인이 부-자 의사소통(임미림, 2014; 최지수, 2015)이라는 연구, 부-자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김영애(2014), 심보현(2013)결과와 유사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은 낮아진다는 결과(이수진·문혁준, 2013; 임훈정, 2015)를 지지한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부-자녀 의사소통이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부-자녀간의 관계형성을 통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연구결과(김보민, 2015),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은 유의하게 낮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사용은 높아진다(김은영, 윤민지, 김래선, 2015)는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조절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다혜(2014)의 연구에서 정서조절 곤란과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와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능력이 부적상관이 나타나는 결과(최재천, 이지연, 장진이, 2014; 윤보영, 정은정, 2016)은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의사소통 중 부의 의사소통, 모의 의사소통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 변인과의 관계에서 각각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며 자기 통제력이 길러지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 통제력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연구결과 밝힌 구용근(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부모-자녀의사소통이 낮은 집단 모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의 강도가 높더라도 정서조절능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선행연구(전미아, 2014)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보영(2016)의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정서조절능력을 높여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고 긍정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개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나혜연, 김연신, 한유진(2017)에서 자기조절력이 문제행동 즉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책으로 정서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학생 스스로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높이고, 표면적 행동이 아닌 내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자기 성찰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수의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은 필수적이므로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높이고 정서조절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밀접한 환경으로 가정 내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중학생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으로 빈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은 예방될 수 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심해지더라도 정서조절의 수준을 끌어올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타인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 중학생은 스스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감정조절프로그램이나 타인 공감능력 키우기 등 중학생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셋째,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이 부의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므로,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조절능력 외에 개인 내적 자원이나 특성 중 변화가능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 청소년이 아닌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횡단적 연구로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측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서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의 시기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세연 (2015).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블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공감과 부모감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신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김경신 (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인경, 윤진 (1995).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이론과 현상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117-136.
- 김영미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9권 제 1호, 1-3.
- 김은영, 윤민지, 김래선(2015).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신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44), 33-66.
- 김기리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2006).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가족복지학**, 39, 49-81.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국내박사논문.
- 김혜선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순희 (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 및

-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화청 (2014). 생태체계요인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 윤리의식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미래창조과학부(2017).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 문두식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매개변인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지선 (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수현 (2006).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 -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우임덕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 이윤미(2014).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이동훈, 김은영, 강석영, 김래선, 최영희, 윤민지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2013 청소년상담연구,17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성실 (201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원 (2010).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숙 (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이창민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종일 (2015).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제7권 제1호.
- 오수남 (201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통제력 및 정서조절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보현 (2013). **청소년의 거절 민감성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수진 (201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존감, 충동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준, 김옥태 (2011). 스마트폰 이용자의 구매동기와 이용행태가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지**, 5(2).
- 조윤미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여옥, 조남익 (2014).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37-156.
- 장 로 (2013).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명희 (198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상관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경 (2015). 남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3), 287-321.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허지혜 (201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기아·방문희 (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63-289.
- 황승일 (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 Parker, J. G.(1989). *The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s problem in childhood*. in B.H. Schneider. G. Attili, J. Nabel, & R.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ing.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nsota.
-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Gu. Y. G.(2014), *The Effects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 Gordon, T. (1974).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Gross, J, H., Crandall, E. 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5th ed*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Gottman, J. M., Katz, L .F.,&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 - 268.
- Kim, D. I.(2014), *Smartphone navigation features addiction: Use of addiction risk aspects, symptoms, mainly the recognition of addic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Forum Information and Culture Policy Research Reports*, 257-283.
- Kline, R. B. (1998). Software review: Software program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s, EQS, and LISREL.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4), 343-364.
- Park, K. W., & Kim. K, S.(2015),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Effects of Ra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20(1),1-32.
- Satir, V.(1971). "people making, paloaAlto", (California Science & behavior Books,

Inc., 1971), p59-95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Skovholt, T.M, & Ronnestad, M. H.(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Sumsion, J. (2000). Caring and empowerment; A tedcher educator's reflection on ethical dilemma.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5, 167-179.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Phone Addi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f Middle Schoolers and Parents

Kim, Su-Mi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er's smartphone phone addi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it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as well as alleviating symptoms of smartphone addiction.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e useful materials in helping middle school students better adapt to school life by effectively addressing smartphone addiction with suppor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In order to attain such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question was set up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Is there any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phone addi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490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llection of questionnaire was made in the period of October 13 to December 5 2017, with 98 percentage of return rate. The final relevance rate of the collected data showed 95% due to the

existence of 14 copies assumed as non or insincere respons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categorized questions including questions on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emotional control ability, smartphone addic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and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s 23.0. In order to check ou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applied, which worked out values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each variable.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nd its sub-variables, a value of Cronbach α was computed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employed for identifying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Lastly,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verification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re as follows. First, 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father communication, it was verified that coping and control ability, one sub-variable of emotional control, has a moderating effect. Second, 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mother communication, it was also verified that coping and control ability, one sub-variable of emotional control, has a moderating effect. Third,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father communication and self-regulation, one of sub-variable of emotional control, as is true for the one between adolescent-father communication and self-regulation, one of sub-variable of emotional control.

These results hereby suggest that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functions as an important variable in alleviating the symptoms of smartphone addiction. It is additionally suggested that emotional control works as variables used in mod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phone addi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developing smartphone-addiction preventive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It's also no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better emotional control as a moder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Furthermore, variou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the related issues in terms of home and school life, all of which should be directed to the benefit of both parents and adolescents. All of this ultimately leads to a desirable and ideal society where positive sentiments can prevail between home, school and students and every member thereof can feel content.

Key words: adolescent-parents communication,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control, moderation effect.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제주도내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평소 생각과 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한곳에만 O 또는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여러분의 대답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할 경우 연구 자료로 사용되기 어려우니,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교수님
연구자: 김수미
ksumi6799@naver.com

1.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의사소통)할 때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5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부모님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O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	2	3	4	5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5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	2	3	4	5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5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을 하기 어렵다.	1	2	3	4	5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함은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5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10	스마트폰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11	스마트폰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서도 계속한다.	1	2	3	4	5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	2	3	4	5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1	2	3	4	5

3.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보이는 행동(정서조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나 V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반갑게 인사를 잘한다.	1	2	3	4	5
2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아이에게 친밀감 있게 접근한다.	1	2	3	4	5
3	다른 친구들을 내가 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시켜 함께 논다.	1	2	3	4	5
4	밖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나는 반갑게 인사를 잘한다.	1	2	3	4	5
5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나는 고마움을 표현한다.	1	2	3	4	5
6	선생님이 화가 나 있을 때, 나는 내 행동을 조심한다.	1	2	3	4	5
7	친한 친구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친구를 위로한다.	1	2	3	4	5
8	내가 잘못된 행동을 선생님이 지적했을 때, 나는 이를 잘 받아들인다.	1	2	3	4	5
9	주변이 소란해도 개의치 않고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한다.	1	2	3	4	5
10	게임에서 졌을 때, 나는 화내지 않고 결과를 수용한다.	1	2	3	4	5
11	게임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는 제일 먼저 시켜주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1	2	3	4	5
13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혼자 놀게 되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1	2	3	4	5
14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1	2	3	4	5
15	화가 났을 때 참을 줄 안다.	1	2	3	4	5
16	하던 일이 잘 안되거나 실패해도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1	2	3	4	5
17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내가 지고 있는 상황 이더라도 규칙을 잘 지킨다.	1	2	3	4	5